

“기아차 파업 안된다”

광주공장 노조, 오늘 부분 파업

“지역경제 큰 타격” 시민·협력업체 철회 촉구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가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광주시민들과 협력업체들은 “광주공장 노조가 더 이상 노조 중앙집행부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독자적 판단을 해야 한다” “광주를 자동차 중심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절대 파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력 주장했다.

광주공장 노조는 지난 13일 9차 협상이 결렬되면서 18일 출정식을 겸한 2시간 부분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로써 광주공장은 올해까지 16년 연속 파업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세우게 됐다. <관련기사 3면>

채용비리, 부패 빼돌리기 등으로 전국적인 비난을 받았음에도 광주공장의 파업이 브레이크가 파열된 것처럼 질주한다는 과거 노조가 없던 시절의 도덕적 해이가 체질화된 데다 임금이라는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노조는 오는 20일 사측과의 10차 교섭에서도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5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 향후 파업수위를 조절해 나갈 방침이다.

중앙쟁의대책위원회는 최근 속보를 통해 ‘조합원 동지들의 여론을 받

아 안고 휴가전에 2006 일단투를 승리로 이끌기 위한 의지를 견지해왔지만, 시기가 내용적으로 장기전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파업이 장기화될 것을 암시했다.

노조는 ▲월 임금 10만6천221원(기본급 대비 7.8%) 인상 및 성과급 300% 지급 ▲장계위원회 노사동수, 조합선임자 이사회 참여, 해외공장 사업과 관련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노사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광주공장과 협력업체는 물론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공장은 이미 고용가와 환율 하락으로 인한 ‘내상’을 입었다. 올 상반기에만 300억원의 환차손이 발생한 데 이어 환율이 100원 하락할 경우 연간 3천500억원의 영업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 설상가상으로 파업이 장기화되면 생산과 판매차질로 인한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200여개에 달하는 협력업체들도 뉴스포티지와 뉴가켄스 생산에 대비, 최근 2~3년 동안 2천여원이 넘는 투자와 800여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한 상태에서 파업이 현실화되면 부품 납품차질에 따른 손실규모가 크게 불어

날 우려가 높다.

이와 관련, 광주공장 관계자는 “한울타락과 고유가 등으로 수백억원의 적자를 낸 상황에서 노조가 무리하게 임금인상과 단체협상안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제너럴모터스-르노-닛산의 ‘3각연대’에 이어 포드-도요타가 합종연횡하는 등 자동차 메이커들이 세계시장을 겨냥한 경쟁력 강화에 나서는 상황에서 기아차의 경우 노사갈등으로 자꾸만 뒷걸음치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직장인 K모(46)씨는 “광주시민들이 기아차살리기와 기아차사주기를 통해 무한한 애정을 보여줬는데, 노조는 파업으로 보답하고 있다”면서 “채용비리 등으로 노조가 자숙하는 자세를 보일 줄 알았는데, 또 파업이 라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하남산업단지내 기아차협력업체 J사 대표(51)는 “몇년 전 광주공장이 한달 넘게 파업하는 바람에 50억여원의 손해를 봤다”며 “그때 오죽했으면 협력사 직원들이 광주공장 정문으로 달려가 ‘파업철폐’를 촉구하는 시위를 했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다른 G사 임직원(44)은 “연봉으로 수천만원씩 받은 광주공장 직원들이 월급 10만원 인상하려고 파업을 한다니 기가 막하다”면서 “올해도 파업이 장기화되면 당분간 공장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고립 할머니 구조

집중호우로 도로 등이 유실돼 3일째 외부 세계로부터 철저히 고립돼 있는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덕적리에서 노도부대의 한 장병이 84세 할머니를 업고 고립지역을 탈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제 등 10곳 특별재난지역 조기선포

호남지역 오늘 최고 150mm 비

정부는 태풍 ‘에우니아’와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본 강원 인제와 평창, 경남 진주와 의령 등 10여 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조기 선포하기로 했다. 또 소방방재청으로 창구를 일원화해 이재민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조기 지급하고, 재난방송 전문채널을 확보해 조기 위험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3·8면>

지난 15일 이후 중부권을 휩쓴 폭우로 인해 강원·경기·서울 등 중부권에서는 17일 오후까지 53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며, 1천500채 가량의 주택이 침수피해를 입어 3천명 이상이 집을 잃었다. 농경지 5천ha 이상이 물에 잠겼으며, 국도 15개 노선 65개 구간이 산사태와 도로 침수로 인해 교통이 두절되는 등 교통·물류 대란도 계속되고 있다.

장마전선의 세력이 다소 약화돼 폭우가 내릴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태풍 ‘빌리스’ 등의 영향으로 장맛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7

일 밤 이후 장마전선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18일까지 영호남 지방에 최대 150mm의 비를 더 뿌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용성 행정자치부 장관은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제3호 태풍 ‘에우니아’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강원과 경남의 10여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18일 중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이 부장관을 맡고 있는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강원 인제·평창·양구·홍천·횡성·정선과 경남의 진주·의령·고성·남해 등을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 지역으로 검토 중이다. 이 장관은 이어 “현재 검토 대상에 올라 있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도 추가 피해조사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며 “특히 강원도에는 주방용품과 식료품 보급, 폐기물 처리 등 응급복구비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대책본부는 특히 이재민에 대한 사망위로금과 부상자 치료비, 주택비, 생계지원비 등을 시·군·구 공무원 확인만 거쳐 신속히 지원토록 했다.

대책본부는 또 아직 확인되지 않은 고립지역 주민과 대피중인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군·경찰·소방 합동구조반을 편성해 투입하기로 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社告

“어려움을 함께 합시다”

지난 14일부터 중부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가옥과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길이 끊기는 등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장마전선 남하에 따라 피해는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집과 가족을 잃고 비탄에 잠긴 이재민들과 피해지역 주민들은 구호

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신문협회 회원사들은 18일부터 성금 모금을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 신속한 방이라도 보태는 마음으로 온정의 대열에 참여합시다. 개별 신문사에서는 성금을 직접 접수하지 않으므로 아래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모금기간 : 2006년 7월 18일~8월 5일
- 모금 곳 : 국민 054990-72-003752 기업 001-000375-93-285
농협 106906-64-003747 신한 287-901-0077375-0
외환 061-04-00051-686 우리 001-098482-18-953
(예금주 : 재해구호협회)
- ARS모금 : 060-700-1004 (1통화 2,000원)
- 구호물품 접수처 : 전국재해구호협회
☎(02)3272-0123 FAX : (02)3272-0122
- 문의 : 전국재해구호협회 ☎(02)3272-0123

한국신문협회·光州日報社

김미현
LPGA 2승
제이티파오웬스코닝
▶ 22면

후원학원 장학 50% 학사비 지원
광주광역시 교육위원회 지정
남부대학교
http://www.nmbu.ac.kr
▶ 성동캠퍼스 062-971-1114 ▶ 10621210-5000-1
세계로 뚫어가는 대학
진남과학대학
http://www.jn.ac.kr
▶ 진남캠퍼스 062-971-1114 ▶ 10621210-5000-1

본사 대표이사 김진영씨

주식회사 광주일보사는 18일 대표이사 사장 직무대행에 김진영(54) 현 총괄이사를 선임했다.

김 대표이사는 광주일보 발행인·인쇄인·편집인을 겸한다.

김 대표이사는 전남 강진 출신으로 광주일고와 경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78년 구 전남매일 수습기자 공채로 입사한 후 1980년 언론통폐합으로 창간된 광주일보에서 사회부장·정치부장·편집부국장·편집국장·기획조정실장(이사)을 역임했다.

김 대표이사는 광주대 언론대학원을 수료했으며 1989년 한국기자협회 광주·전남 지부장, 1990년 한국기자협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별도의 취임식은 갖지 않으며 축하 화환·회분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김진영 사장>

336년 역사

북경동인당이 원료를 엄선하여 만든
금단(金丹) 타입의 신제형 명품-
동인우황청심환-비 **금단** 일동제약 출시!

동인우황청심환-비는 북경동인당의 첨단 제약기술과 엄선한 재료로 만든 금단 타입의 신제형 제품입니다

- 중국을 대표하여 336년 역사를 자랑하는 북경동인당이 제조합니다
- 수주(水珠)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 소위 금단(金丹)타입으로 특대우 복용이 간편합니다
- 1봉에 대한(大丹) 2개분의 우황청심환이 들어 있습니다
- 맛과 향이 우수하고, 복용 후에도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지 않습니다
-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순위를 인정합니다

• 신력의 임팩트(이)보통입니다
제품 구입할 때, 세드북 북경동인당고분유원명서부 꼭 확인하십시오

문의: 080-022-1010 동인우황청심환-비 금단은 중국 정부와 우리나라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제품입니다